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8월 18일 (제126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하나님의 계획

청소년 수련회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 주일에배를 인도한 나는 다시 기도원으로 향했다.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공사가 있어 서다. 나는 포클레인을 다룰 줄 아는 어느 집사와 몇몇 신학도를 차출하여 그들과 함께 일했다.

일을 하다가 잠시 쉴 때 그 집사와 자리를 함께했는데, 그가 내게 할 말이 있단다.

“목사님, 저는 늘 어머니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교회에서 권사 직분까지 받았지만,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시험이 들어 지금은 교회에 안 나오십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나는 바로 그의 어머니와 통화했다. 그의 어머니는 내 목소리를 듣고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이번 주에 교회에 꼭 오세요. 예배 후에 우리 같이 점심 먹읍시다.”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기도원에 오게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는 다만 포클레인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서 너를 택했지만, 하나님은 어머니를 구원하고자 하는 네 기도를 들으시고 큰 계획을 세우셨던 거지.”

성경은 말씀하신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 뜻이 완전히 서리라”(잠19:21).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뒤집어써워 옥에 들어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보이는 현상일 뿐,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실권자로 만들어 70인의 가족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하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신 것이다(창45:7~8).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너무 깊고 높고 넓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도 실망,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진행 중이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엡1:11~12).

자갈밭은 잡초도 싫어한다!

연일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더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산을 찾은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하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을 가르쳐주셨다.

“하늘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엘 천사장이 3분의 1의 천사들을 이끌고 반역을 꾀하다가 하늘에서 내쫓겨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놈이 바로 큰 용이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입니다. 함께했던 3분의 1의 무리도 함께 내쫓겨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란 놈은 자기 시대가 얼마 되지

사람들이 갑자기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니 모두 호텔로 들어가 꼭꼭 숨어버립니다. 이처럼 험기 내고 분을 내는 것은 가정뿐 아니라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자갈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언을 썼어요. ‘자갈밭은 잡초도 싫어한다, 옥토는 모든 초목이 좋아한다, 온유한 자에게 복과 사람이 따른다.’ 가시나무도 자갈밭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낮 놓고 기억 자를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 악한 자라도 성내고 분내는 자갈밭 같은 사람 싫어한다니까요. 남

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더니 천하에 온유한 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며 스테반 집사를 죽게 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더니 분을 내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경고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4:26~27).

분을 다스리지 못한 사울이 어찌 되었습



2024 하계산상집회(8월 12일~22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않는다는 것에 크게 분이 나서는 사람들을 분이 가득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분 내고 험기 내고 성질부리는 거 다 마귀란 놈에게 속는 겁니다. 곧 분노, 화의 원인이 마귀란 겁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특하면 성질 팍팍 내고 험기 부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성질부리는 남편이나 아내, 같이 살고 싶습니까? 내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며 물어보았지만, 단 한 사람도 좋다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미국 플로리다 집회에 갔다가 숙소에서 해변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백사장 가득 삼삼오오 거닐던

녀노소 모두가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의 못된 꼬라지 자갈을 골라내어 옥토를 만들어야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내 교회에도 기쁨과 생명이 가득해집니다.

내가 기도원 공사를 하며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포클레인은 엄청 얽그레이드해서 단순히 땅만 파는 정도가 아니라 360도 회전하며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자갈밭을 파서는 탈탈 털자 자갈만 남고 고운 흙은 싹 걸러냅니다. 그걸 보고 무릎을 탁 쳤지요. ‘그래, 방언기도로 내 마음속 자갈을 탈탈탈 걸러내니 옥토가 된 것 아닌가!’ 나도 예전엔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할 정도로 한 성질 했었습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천하에 온유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릅니다. 부단히 기도하며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

니까? 분을 다스리지 못한 아합이 어찌 되었습니까? 모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청년들 세미나에 화장품 중의 최고의 화장품을 준다 했더니 ‘와’하고 기대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화장품 중에 최고의 화장품은 웃음이다.’

복 받기 원하면 온유한 자가 되세요.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시37:11).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마5:5). 오늘 이 성산을 찾은 여러분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2024
하계산상집회

2주 차, 8월 19일(월)~22일(목)
장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22:39~46)

습관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습관을 바꾸십시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리 동물이 싸우며 살고 있단다. 하나는 거짓이란 동물이고, 하나는 진실이라는 동물이지.”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두 동물 중 누가 이기나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동물이 이기지.” 먹이를 계속 주는 것,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내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반복이 습관을 낳고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생각보다 빠르다

습관은 익힐 습(習)과 버릇 관(慣)으로, 몸에 익어 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을 말합니다. 처음에 의식적으로 행하던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몸에 익어 무의식중에도 행해지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요. 처음에는 녹이 쇠에 슬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녹이 쇠를 먹어버리는 이치와 흡사합니다.

김연아 선수를 아시죠? 사람들은 김연아 선수가 하늘이 내린 재능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코치였던 존 오서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아의 재능이 하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연아의 연습 과정을 3일만 지켜보세요. 한 번의 비상을 위해 연아가 얼마나 점프하는지를 보시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한 번의 비상을 위한 천 번의 반복적인 점프... 그것이 오늘의 연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반복적으로 노력하면 달인이 되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요? 손이 피아노에서 춤을 출 때까지 반복하면 가능합니다. 반복해서 글쓰기를 하면 한석봉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요?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된 지금도 하루 다섯 시간 이상 연습한다고 합니다. 습관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반복에 반복으로 연습했기에 세계적인 기량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목회 초기에 어느 목사님이 부르는 찬송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은혜롭게 찬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연습하

고 연습했습니다. 요즘 제 찬양만 들으면 은혜가 넘친다고들 합니다.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 악한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2~24).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구습(舊習)이란 과거의 습관을 말하는데, 나쁜 습관, 악한 습관을 버리

고 좋은 습관을 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 의

식적으로 배제해야 고쳐집니다. 게으른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지각하는 습관, 대충하는 습관... 이런 구습을 의식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습관을 버리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흰공과 검정공을 섞기는 쉬워도 골라내는 것은 매우 어렵듯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눈이 실족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손이 실족케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개혁의 정신이 있어야 나쁜 습관을 잘라버릴 수 있거든요. 나쁜 습관은 인생의 암일진대, 암과의 싸움은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여자 헤라클레스’라고 불리는 역도 선수 장미란, 현(現) 문체부 차관을 아시죠? 어느 날, 코치는 장미란 선수에게서 나쁜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바벨을 들어 올릴 때 자주 오른 다리를 뒤로 빼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아마도 힘에 부치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코치는 이 잘못된 동작만 바꾼다면 현재 세계기록보다 최소 10kg을 더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의 잘못

된 습관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정말 장미란 선수는 1년여 동안 파나는 노력으로 나쁜 자세를 교정해나갔습니다. 구습을 바꾸기 위해 의식적으로 바벨을 들 때 동작에 신경을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렘22:21).

에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나쁜 습관, 즉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알아 합니까. 여러분도 망하지 않으려면 잘못된 구습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구습이 여러분의 인생을 잠먹기 전에!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세요. 좋은 습관을 들이세요. 그중에서도 제가 꼭 권하고 싶은 습관은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6:10),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 습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렘10:2), 이것은 고넬료의 기도 습관입니다.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행3:1),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습관입니다.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

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행16:24~25), 이것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어 있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눅22:39~41),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습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습관은 그를 느브갓네살 왕부터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형통케 했고,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가장 먼저 그와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며, 베드로와 요한은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고, 바울과 실라는 땅이 진동하여 옥에서 풀려나왔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들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 기도가 몸에 배면,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면 갇혔던 너희 삶이, 착고에 채여 움작달작 못했던 너희 인생이 풀리게 된다. 문제가 해결되고, 꼬였던 것이 풀리고, 막혔던 것이 풀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습관이 있다

여러분,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줄 압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되기 전에 그만두기 때문에 늘 그 자리인 것입니다. 어느 여목사가 동일 제목으로 십만 번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방울도 계속 이어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 법, 억울한 과부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재판관을 찾아가니 불의하기 그지 없었던 재판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반복적인 기도가 이 나라에 평화통일을 가져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만큼 은혜와 축복의 깊이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분량만큼 능력의 크기가 달라지며, 기도하는 만큼 삶의 지경도 넓어지게 되니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가 받을 은혜와 축복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그 얼마이겠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현세와 내세를 바꿀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엡6:18).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2024 서울·인천교회 여름성경캠프

인천교회(8월 9~11일), 서울교회(8월 11~13일),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여름성경캠프가 인천교회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세 살까지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젖먹이를 말합니다. 젖먹이가 될 알까 싶겠지만, 하나님은 그 때부터 조기 교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교육하라는 것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찌니라”(신6:6~9).

요즘 목사님은 ‘반복적인 습관’에 대해 자

주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한다면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 영·혼·육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경캠프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캠프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습관을 들이는 천국잔치입니다. 아이들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외침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배우는 시간이었으며, 아이에게도 찾아오시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캠프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시대 목사님께서 직분자들을 위한 교육에서 배가 부흥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아유치부도 배가 부흥을 위해 기도

와 전도로 이번 캠프를 시작하였습니다. 배가 부흥을 목표로 하는 이번 여름성경 캠프에 유아유치부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기도와 금식,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꾸준

히 독려하고 응원하며 이번 캠프를 준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아이의 의지만으로 캠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견이 절대적인지라 쉽지 않은 전도가 되었습니다. 7살의 쌍둥이 자매는 자신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을 전도하다가 아무도 못 간다고 하자 울었다는 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클 것이라는 증거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선생님들과 함께 금식과 기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유아유치부 성경캠프. 역시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캠프였습니다. 지방에서 온 아이들, 당근 어플로 온 아이들, 아직 1살도 되지 않은 영아에 전도하여 온 아이들까지 많은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하였고, 어머니들께서 발걸음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간식과 식사를 준비해주신 교육부 자모회부터, 봉사자로 온 수많은 사람들, 아이들

이 충분히 쉬고, 안전할 수 있게 모든 행정적인 부분을 맡아주신 인천 교회 장영국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들. 성령 세례 시간에는 서울 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심으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모든 일정 동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고 의의 길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교회 내 모든 부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행사를 이끌어 선을 이루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여름성경캠프가 될 수 있도록, 캠프를 통해 유초등부의 부흥, 더 나아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 늘 힘쓰는 유초등부가 되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127:4~5).

서울 유아유치부 이삭 전도사
인천 유초등부 최휘동 전도사



한국 최초 기독교 복음 선교사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원두우, 1859~1916)는 북장로교 최초의 목사 선교사로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함께 제물포항에 입국하여 북장로교 선교의 개척자가 됩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13세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뉴욕대학교와 뉴저지주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신학교 시절 학생 자원운동(SVM)에 참여하며 인도 선교사의 꿈을 키웠으나 어느 날 일본 선교사 올트만으로부터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이수정의 편지를 읽게 된 후 조선으로 선교지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아무도 조선 선교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자신이 지원하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후 언더우드는 선교부에 한국 선교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합니다. 당시 조선은 의사 및 교육 선교사만 허락되었기에 목사인 언더우드의 지원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이나 지원서를 내는 그의 결의를 보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 목사 엘린우드는 지도부를 설득하여 허락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제물포에 도착할 때는 갑신정변으로 정국이 불안하여 당시 주한공사 푸트로부터 일본에 돌아갈 것으로 권유받습니다. 함께 도착한 아펜젤러는 부인이 임신 중이었기에 잠시 일본으로 돌아갔으나 총각인 언더우드는 알렌의 도움으로 서울 땅을 밟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처음에는 제중원에서 알렌을 도우며 영어, 물리학, 화학 등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1886년 5월 정동에서 고아들을 모아 공부를 가르쳤는데, 이것이 예수교학당(1891)입니다. 김규식 선생을 배출했고 1905년 경신학당(현 경신중·고등학교)이 됩니다. 1915년에는 조선기독교학교를 개교하여 1917년 연희전문학교가 되고(현 연세대학교), 이 학교를 통해 김규식, 안창호 등 많은 민족지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1887년 9월, 집 사랑채에서 예배를 시작하여 훗날 한국 최초 장로교회인 정동교회(현 새문안교회)를 세우고, 송동교회, 연동교회, 서교동교회, 노랑진교회 등 전국에 21개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는 전도 활동에도 매진하

여 1887년 개성과 평양을 방문하였고, 1889년 3월에는 신희여행으로 북부지방 1,600km를 전도 여행하였습니다. 여행 기간 6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100여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 연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YMCA 출범에 기여하였고, 1907년 장로교 독노회의 첫 노회장, 1912년 장로교 초대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여 교단을 초월한 많은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합니다. 1891년 첫 안식년 휴가 동안 미국에서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강연하고 남장로교 지도부를 설득하여 남장로교에서 최초로 선교사 7명을 파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1893년 내한한 맥켄지는 언더우드의 글을 읽고 한국 선교사의 소명을 받습니다. 또한 캐나다 에비스 교수, 스왈론 선교사 및 영국 성공회 소속의 휴 밀러 등을 한국에 오도록 합니다. 그는 출판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사전 편찬, 한국학 연구 자료를 출판합니다. 그리고 문서 선교를 추진하여 1886년 조선성교서회(현 대한기독교서회)를 조직하였고, 1887년에는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하여 성경 번역에도 헌신하였습니다. 선교 잡지 창간 및 신약전서 번역 출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890년 실용적인 어휘들을 중심으로 한국 최초 한영사전, 한영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만난 릴리아스 홀튼(명성왕후 의사) 선교사와 1889년 결혼하였고, 여성 치료 사업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하였고, 4대에 걸쳐 후손들이 한국 복음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2세 원한경 선교사는 연희전문학교 교장, 3세 원득한, 4세 원한석은 연세대학교 재단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언더우드는 1916년 4월 건강이 악화하여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그해 10월 뉴저지에서 57세로 소천하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미국 뉴저지 유니온힐에 안장되었다가 1999년 아내 릴리아스 선교사가 묻혀있는 양화진에 합장되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적 성격과 늘 희망적 소유자이며, 도전적인 사역을 수행하여 초기 한국 복음화에 큰 리더십을 발휘한 선교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친형이 성공한 사업가이며 미국 선교부이

사로 활동하며 언더우드를 지원하여 재정 및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 땅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가난과 무지,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 진정 한국을 사랑하는 선교사였습니다.

*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아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기신이라고 손가락질받고 있사오나, 그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김종춘 목사

생각이란 놀라운 도구

이 땅에서 오직 인간만이 생각한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령(生靈)이 되게 하셨다. 따라서 인간의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영생한다. 영적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법이다. 하나님이 생각과 말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스스로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이 생각과 말을 활용해 만물이 우릴 돕게 할 뿐 아니라 내 뜻대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와 닮은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드물 뿐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를 알고 활용해 큰 부자가 되거나 건강을 찾거나 행복을 끌어당기며 산다. 이와 관련 수 많은 책이 이미 세상에 널리 퍼뜨려져 있다. 하물며 매일 이런 설교 말씀을 듣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히려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해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생각으로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영적인 존재는 알기에 악한 영들은 오늘도 우리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애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겨내고 우리 생각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매일매일을 긍정의 생각, 복을 끌어당기는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 목표를 이뤄낸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단련해야 한다.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매일 아침 방언기도를 하며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내 생각을 지켜나가자. 이를 내 몸에 완전히 체화시킨 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릴 돕고 만물이 우릴 향해 도움의 손을 펼칠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시로 기도하며 내 생각을 지키는 데 사력을 다하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장명훈 집사



여보게!
인류의 평화는 침단 무기로 이룰 수 없다네
평화,
그 자체가 사랑 아니겠는가!
사랑만이 평화를 추구할 진실된 무기라네
-朋友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